

## 편집장의 글



어떤 의미에서, 『국제저널 무형유산』 제 12 권은 무형유산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가상이나 실제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이 점유하는 사회적 공간에 주목하며, 2003 년 협약에서 인정된 관련 문화공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변화(거의 기후변화 수준)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 외에, 'S'로 시작되는 몇 개의 단어(소프트 파워(Soft power), 초다양성(Super-divers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이 책을 구성하는 11 개의 기고에서 언급되는데, 이 중 일부는 이 책에서 독자들에게 처음으로 소개되며, 나머지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환경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상품은 콘텐츠 또는 콘텐츠를 유통하는 수단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콘텐츠의 이해(contextualisation of content)라는 폴사포(Paul Sapho)의 선구자적 주장의 진정한 의미와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할 때, 전술한 이 모든 용어의 근거가 되는 것은 공간(Space)이다. 실제적이든 가상적이든, 전통적이든 현대적이든, 직관적이든 해석적이든, 사실상 이 책에 포함된 모든 글에서 논의되는 성찰적 담론(reflective discourse)은 이 상황에 맞는 이해(또는 공간)에 대한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수몰된 땅, 잊혀진 목소리」는 아스완 댐 건설에 따라 나일강 계곡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누비아족(Nubia)의 전통적 공간의 상실과 더 나아가 그들의 무형유산의 손실에 대한 이야기이다. 누비아족은 댐 건설로 터전에서 쫓겨나 자신들의 유산으로부터 단절된 후 공동체의 관습을 보호하기 위해 누비아족의 언어와 무형유산에 대한 기록, 보호 및 진흥에 온 힘을 쏟아 왔다. 자신들의 유산을 유지하려는 누비아족의 노력을 지원하는 현재의 이니셔티브는 주목을 받고 있다.

다른 기고들도 동일한 이슈에 주목했다. 「언어에 거주하기」에서 저자는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 속에는 생태계에 대한 전통적인 지식이 내장되어 있다' 즉, 언어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처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흔적을 포함한다는 일종의 언어 생태학을 환기시킨다는 생각을 탐구해 나간다. 저자는 전통 문화 보호에 있어서 문화의 정수(essentialising culture)만을 추출 해내고 시간 속에 문화적 관습을 '고정'시키는 위험을 무릅쓰는 유네스코의 고집스러운 무형문화유산 목록화 집중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문화의 표현 형식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그 관습의 의미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관습 속에 유산의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부르디외(Bourdieu)의 실천이론(theory of practice)에 동의하며, 언어를 인간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 수단으로 간주한다. 즉, 언어는 그 자체로, 언어를 생산하는 인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위한 유기적인 목록 시스템(organic inventory system)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디지털화」에서 저자는 기술(technology)에 대한 학문적 태도와 주변환경과의 지속 가능한 상호작용에 필수적인 토착적(직관적) 지식을 가진 세대에 대한 존중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갈등 조정에 대해 고찰한다. 새로운 디자인 시스템개념에 이러한 관점을 잘 결합하면 최종 제품의 진본성(authenticity)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자는 오바헤레로족(OvaHerero)의 무형유산을 재현하기 위해 제작된 결과물인 디지털 '공예품'의 무결성(integrity)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 디자이너들간의 상호존중이 이루어지는 참여 형 디자인(Participatory Design)을 지지한다.

디지털화된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소유권'을 원주민 공동체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한 나미비아 사례 연구는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저자는 *보존된 자료(preserved material)*가 기술적 시스템에 어떻게 내장될 것인지, 그리고 미래의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를 고려한다. *무형문화유산(ICH)*이 *비트(bit)*와 *바이트(byte)*로 디지털화될 경우 하나의 형식에서 다른 형식으로의 전환을 겪게 되는데, 저자는 이 전환은 반드시 연구 검토되어야 하며, 큐레이터들이 참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유산 보존의 저작권과 데이터의 진정성: OAPI 회원국 사례**」의 저자는 바로 이러한 전환 과정에 주목한다. 그러나 그녀의 1 차적 출발점은 아프리카 지적 재산기구(OAPI) 국가의 문화보존에 사용된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유산을 채택한 정부 부처들과 단체들을 문화 및 관광분야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유산 디지털화는 데이터의 진본성에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디지털 저작권이 필요한 종류의 보호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 저작권의 지속 가능성은 국가 공동체의 공동 유산을 보호하는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와 같은 우려가 있었다. 저자는 아프리카 지적재산권기구(OAPI)국가들이 무형문화유산 디지털화를 위한 법적 프로토콜 수립이 동일한 목적을 수행한다고 판단 할 경우에 얻게 될 가치는 유산의 디지털화에 따르는 위험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액체황금**」에서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상업적 아르간 오일(Argan Oil) 생산과 베르베르족 여성들 사이의 전통 지식의 보존이라는 양자 간의 미묘한 균형유지는 전통맷돌을 사용하는 전통적 오일 생산 방식의 붕괴와, 현지 오일소비량의 감소 및 힘든 육체 노동이 지닌 가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오일 생산 전승과정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모로코의 아르간 나무가 갖는 고유성으로 인해 오일 생산이 특정 공간과 밀접하게 결부되었지만, 맷돌제작기술은 쇠퇴하고, 사용중인 맷돌의 수도 점차적으로 감소했다. 아르간 오일 생산은 가능한 광범위한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서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협동 조합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고, 동시에 모로코 정체성의 본질적인 부분인, 오르간 오일과 열매에 대한 전통적인 사용법도 다수 보존되고 있다.

매우 소중한 전통 자수 양식인 키프로스의 **레프카라 레이스(Lefkara Lace)**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는 여성그룹 및 연합단체들이다. 저자는 정부와 지역 사회 모두가 전통 디자인과 제작기술을 젊은 세대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방문자들에게 전승하기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전략과 프로그램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잠재력과 성공은 전통의 가치를 인정하고 새로운 디자인과 창조성에 영감을 불어 넣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현지장인 예술가 및 협업 워크숍의 참여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 책의 주제는 대부분 전통적인 장인 정신 및 지역 사회의 참여이며, 갈등 해결에 대한 부분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 항저우의「공예협업」의 저자들은 장인들과 박물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와 협력의 복잡한 본질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요즘의 중국 박물관은 장인의 솜씨(craftsmanship)를 큐레이팅(curating)하기 보다 그것을 선전하고 제시한다. 이런 점에서 잭슨(Jackson)과 키드(Kidd) (2011)의 「유산공연(Performing Heritage)」에서 저자들은 박물관을 극장과 유사한 것으로 상정한다. 이곳에서 유산은 배우들(큐레이터, 유산전문가, 전통보유자, 방문객) 각각이 기대하는 바와 함께 공연되고, 유산의 진본성은 끊임없이 (재)협상되고 (재)구성된다. 다양한 당사자들이 갖는 이해와 동기로 여러 갈등이 초래되었다. 예컨대, 전통 상점과 시골 마을에서 분위기가 좀 더 고상한 박물관으로 장소가 바뀜으로 인해 기대감이 고조되었고, 큐레이터와 공예가 간의 상호작용에도 변화도 일어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예가들과 (공예품의) 공연을 기획하려는 사람들 간에 협상과 타협이 필요했다.

나이(Nye)의 **소프트파워(Soft Power)** 개념과 무형문화유산과의 관계는 이 저널에서 처음 등장한다. 저자는 2003년 **협약** 이행 및 **대표목록**에 유산등재와 관련된 당사국의 참여 정도가 선택된 지표상에서 특정 국가의 '소프트 파워' 랭킹을 분석할 때 측정 가능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저자는 중국 및 미국과 같이 이 랭킹에서 유의한 위치를 점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회원국들도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 등장한 '무형유산담론(Intangible Heritage Discourse)'의 존재와 중요성을 로라 제인스미스(Laurajane Smith)가 처음으로 발표하여 이제 10년이 된 '공인된 유산담론(Authorized Heritage Discourse)'과 함께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이 두 담론에서 유네스코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이 새로운 낱어의 유효성과 단절이나 변경 가능성이 동일하게 중요시된다.

「**웨스트-크루스케이드(West-Kruisde)의 초다양성**」에서 저자는 무형유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2003년 **협약**에 새로운 딜레마를 제시한다. 무형유산의 보호는 국가유산목록에 대한 선정이 그 선정과 관련된 사회적 공간과 구체적인 관련성을 갖는 특징이 있다. 네덜란드의 철학 문화 연구소에서 등장한 이 새로운 용어를 이용해 저자는 이러한 가정을 재고하고, 서유럽 지역 쪽으로 이민자들이 유입됨으로써 대도시의 인종 구성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이 용어를 통해 한정된 공동체, 영속성, 위치 중심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여기에서 저자는 공유된 미래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유된 과거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포함/배제**와 **변형/과장**이 타협되는 정치분야에 초점을 맞춘 **쌍방향적(bidirectional) 공간창출**을 대신 언급한다. 새로운 이민자들이 웨스트-크루스케이드(West-Kruisde)에 소개한 전통은 실제로 역사적인 과거(전세계 여러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역사적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저자가 주장한 초다양성은 **디알리(Divali)**, **케티코티(Ketkot)** 중국의 춘절과 같은 다양한 민족적 또는 종교적 축제가 역동적이고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동의 축제로 발전하는 사회적 속성의 새로운 형태를 창출한다.

「**웹상에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하기**」에서 저자들은 2003년 **협약**에 명시된 핵심 프로세스에 순응하는 접근 방식을 취한다. 이탈리아 롬바르디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멀티미디어 정보 시스템을 위한 통합 관리 플랫폼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방법론 및 도구를 자세하게 제시한다. 또한 온라인 시스템이 갖는 혁신적 기능을 강조하고 무형문화유산데이터에 대한 관리, 검색 및 브라우징 환경을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접근법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초다양성시대의 무형문화유산**」에서는 제시하는 이슈에 대한 다른 접근방식으로, 유네스코 2003 **협약**과 관련된 평가 및 목표에 대한 기본 틀의 일부로서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정책과 실천을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되돌아본다. **협약**이 이행된 첫 10년 동안 이 **협약**은 **공유된 정체성** 및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실천 및 전승** 또는 **무형유산에 대한 참여를 통해 공유된 역사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 **원천공동체(source communities)**라는 핵심 개념을 고수했다. 그러나 서유럽의 대도시들은 이주과정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주 과정에서 사회 통합 및 공동체에 문제가 제기되고, 무형유산의 확산 및 역동적인 변화가 야기되었다고 여겨진다. 저자는 일련의 문제를 제기하고 유네스코 및 당사국들이 **문화적 다양성과 인간 창의성에 대한 이해공유, 교환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리뷰 섹션에 기고문이 넘친다는 것은 학계 인물들과 행정가들이 스스로를 무형문화유산 부문에서 배우(역할자)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유산 분야, 더 명백하게는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문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련의 사례 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유산참여, 공동체참여」는 유산,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 참여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해석해 본다. 더불어 한 저자가 *공동 고고학(collaborative archeology)*, *공동 박물관학(collaborative museology)*, *공동 큐레이션(collaborative curation)*이라고 지칭한 것과 다른 저자가 지적한 이 게임에 참가하는 '실천가들과' '사상가들'이라는 두 플레이어의 역할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 검토한다. 「무형문화유산과 디지털 도구」는 *무형문화유산과 디지털 도구 사이의 연결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증거를 결합*하면서 이러한 경향의 연장선상에 서있다. 이 간행물은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늘어나는 가용성과 함께 무형문화유산의 동시출현의 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서평자가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동시 출현은 *프랑스어의 호모포니(homophony)*로 인해, 한편으로는 *무형문화유산*과 다른 한편으로는 *대상물 및 문서 컬렉션에 대한 디지털화에* 의해 발생하는 *비물질적 문화 유산 간의 혼동*을 야기시켰다. 공동관리, 전문 지식 다양화와 참여 정책이 핵심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에서 저자들은 특히 *자연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산에 지속 가능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 지속가능성의 경계를 개념이나 관례에 따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담론에 기여한다. 기고문의 핵심은 유네스코의 2001년 *문화다양성선언*에 기초하고 있지만, 책의 각 섹션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고려해야 할 다양한 사항을 제공한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유산관리전략에서의 지속가능성 섹션인데, 이 섹션에서는 식민시기 동안 소외되었던 유산 관련 주장을 지지하고 최근에 등장한 *탈 식민주의적 문화 다원주의*에 대해 논의한다. 「*루틀리지 컴패니언*」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사례, 장소, 사람 및 정치와 연관된 쟁점, 과제 및 요인들이 고려되어있는 전반적인 조사로서, 다른 모든 기고문을 보완한다. 서평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가 없는 과거의 선물이 무형문화유산과 탈 식민지적 상황에서 청구서이자 돈이 되는 수단으로서의 무형문화유산 간의 대립*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컴패니언*」은 향후 10년 동안 기본적인 참조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책 내용의 90% 이상은 무형문화유산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사례 및 접근법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전망의 재검토, 그리고 2003년 *협약*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재조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전체적으로 강조할 점은, 과거든 현재든 관계없이, 공동체가 이러한 특정한 표현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공유된 특징이나 가치의 증거로 인정한다는 것과,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문화적인 창의성이 높아지면서 행해지는 무형유산에 대한 다양한 재해석과 창작 활동이 무형유산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의제가 무엇이든 간에, 경제적 및 사회적인 발전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문화적 표현의 자유 사이에 균형이 이뤄질 때, 명확히 달라지는 관점에 대해 지적하는 전세계적인 논의가 이 책에서 예기치 않게 등장한다. 세계 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 인구의 7명 중 1명은 국내 또는 국제적,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 이민자이며, 이들은 다양성을 배우며 살고 있다. 고향을 떠난 이방인 공동체가 그들의 인간성을 보호받으며 문화를 실천하고, 어느 곳에 거주하든 그들이 자신의 유산을 되찾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과제이다.

편집장  
알리산드라 커밍스  
2017. 5. 28

---

<sup>1</sup>폴 사포(Paul Sapho), '문제'는 컨텍스트야, 바보야(It's the Context, Stupid), 1994.